

가족 순모임: 주여, 주님을 향한 깃발을 들게 하소서

Small group in family: LORD, Let Us Raise Our Banner

시편 Psalm 60:1-12

시편 60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쓴 시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오늘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현재의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1.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1-3절)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다윗은 시련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 대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가 부르짖은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1-2절)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비록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확실하게 차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6-7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군대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4절).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질문

1.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을 달라고 했나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까요? Why did the Israelites want a king? Why is asking for a king the same as rejecting God?
2.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인가요? 그것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God sent an eternal King to reign over us. Who is that king? Do we believe this to be true and live accordingly?

